

#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이용한 대학 교직원의 복리증진

한국교직원공제회

## 설립목적 및 기본사업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국내 유일의 교직원 복지기관’으로 모든 교직원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1971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됐다.

설립 당시 회원 7만 명, 자산 13억 원에 불과했던 교직원공제회는 고객지향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65만 명의 회원과 20조 원의 자산, 그리고 10개 산하사업체를 보유한 국민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교직원공제회는 △저축·보험·대출 등의 금융복지 △상조서비스 예다함을 비롯한 호텔·병원·예식장, 그리고 가족캠핑, 뮤지컬 초청 등의 생활·문화복지 △교육 기관 전용 전자조달시스템 B2B의 직무복지

등 다양한 금융제도와 복지사업을 통해 교육가족의 보다 풍요로운 삶을 지원해 오고 있다.

무엇보다 확고한 수익 기반 아래 회원들을 위한 높은 급여율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사업 및 개발사업 부문의 수익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를 비롯해,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등 SOC 사업, 대규모 부동산 사업, 해외투자 사업 등 투자선 확대를 통해 장기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에듀카’에서 시작하여 종합손해보험사로 성장한 더케이손해보험을 비롯해 대한민국 상조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더케이라이프 ‘예다함’ 등 출자회사의 성장도 주목된다.

## 장기저축급여, 기간·금액별 저율과세

‘장기저축급여’는 교직원의 퇴직 후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국내 최장기 저축상품이다. 노후를 위한 저축이기 때문에 공제회의 공신력과 안정성은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함으로써 공제회 회원 자격을 취득, 호텔·콘도·병원 할인, 각종 복지부조금, 회원대여, 예식장 이용 등 일반 금융기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혜택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다.

장기저축급여의 퇴직급여율은 실세금리와 연동되며 한국은행이 공시하는 시중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보다 높게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연복리를 적용한 연배출제 급여금 계산으로, 납입기간이 긴 장기 가입자에게 더욱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장기저축급여의 가장 큰 장점은 시중 금융기관 저축상품의 일반 과세율 체계와는 달리 별도의 이자소득세 체계가 적용돼 비과세(1998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또는 저율과세(199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혜택이 있다는 것이다.

세율은 가입기간과 금액에 따라 0~3.16%(주민세 포함, 25년 가입 기준)를 적용, 시중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세(15.4%, 주민세 포함)보다 훨씬 유리하다. 또한 장기저축급여의 이자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같이 높은 부가금, 낮은 이자소득세 등의 이점 때문에 거의 모든 현직 교직원이 장기

저축급여에 가입하고 있다.

실례로 25년간 매월 42만 원씩 저축할 경우 퇴직시 원금 1억 2600만 원에 이자 1억 4,931만 원을 더해 총 2억 7,531만원(세전,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 가능)의 퇴직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원금의 2.185배 수준. 따라서 신규 교직원들은 무엇보다도 일찍 최고 한도(700구좌)까지 장기저축급여에 가입, 총 납입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장기저축급여는 연복리가 적용돼 시중은행 금융상품에 비해 안정적인 재산증식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참고로 장기저축급여의 퇴직급여율 5.75%(연복리, 25년 이상 가입 기준)는 비과세를 적용할 경우 25년 만기 시중은행의 정기적금(단리) 세전 11.17%에 해당된다.

첫 부담금을 납입하면 회원증이 발급되며 부담금은 매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다. 희망자는 소속학교 또는 기관에 비치돼 있는 가입(증좌)신청서(공제회 소정양식)를 작성, 해당 시·도지부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http://www.ktcu.or.kr))와 나이스(NEIS)를 통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 출산보조금 등 다양한 복지부조금

공제회에 최초 가입하면 신규회원 가입 축하기념품이 제공되며, 다양한 복지부조금

혜택도 주어진다.

전년도 12월 말 기준 장기저축급여의 총 누적 구좌수가 상위 1% 이내인 회원에게 30만원 또는 이에 해당되는 복지포인트가 지급되는 고구좌 회원 축하금, 회원(현직)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부모 및 자녀)이 사망할 시 지급되는 가족사망부조금, 가입 2년이 지난 공제회원이 원상회복 불능의 상병으로 퇴직할 때 퇴직급여금 외에 별도로 무상 지급되는 상병급여금 등이 그것이다. 결혼시에는 결혼기념품, 출산시에는 출산 보조금도 지급된다.

이외에도 주택재해부조금은 회원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또는 회원이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재해로 인해 파손됐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저축급여에 1년 이상 가입 후 정년·명예퇴직을 맞은 회원 및 15년 이상 가입 후 퇴직을 한 회원에게는 퇴직기념품도 지급된다.

### 전국 직영·제휴호텔 할인 이용

또한 회원이 되면 공제회의 직영호텔인 서울·경주·설악교육문화회관, 지리산가족호텔,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주요 관광지에 지정된 60여개의 제휴 호텔·콘도를 이용하면 숙박요금을 최고 20~7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게다가 회원이면 누구든지 여의도 교직

원공제회관을 비롯해 부산·대구·인천·광주·경남·강원·전북·대전회관 등 9개 공제회관의 예식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국 13개 주요 도시에 지정된 교직원 법률상담소에서는 민·형사상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제회는 서울·광주 등 6곳에 무료 세무상담소도 운영하고 있다.

공제회는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80여개 의료기관과 협정을 체결, 종합건강검진 등에 대해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접수 시 회원증을 제시해야 하며, 종합건강검진의 경우 5일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또한 경찰병원 장례식장, 가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동국대 일산병원 장례식장, 동아대 의료원 장례식장 등과 제휴, 장례비용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제회는 지난해부터 직접 찾아가고, 서로 소통하며,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안겨주는 신개념의 고품격 생활·문화 복지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문화강연 콘서트, 프로야구 관람, 가족 캠핑 및 걷기대회, 역사탐방, 골프대회, 찾아가는 재무설계 상담, 뮤지컬·연극 초청 등 다양한 감성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 대학 전자조달시스템 B2B

한편 대학교 및 유관기관이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조달시스템 B2B 구

축을 통해 공제회의 회원 복지 시스템은 이제 회원 개개인을 넘어 교육행정 업무복지 체계 구축으로까지 확대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B2B 전자조달시스템은 쇼핑몰, 견적구매, 입찰 서비스로 구성됐으며, 이용 수수료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물품구매 및 공사·용역 계약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교육 현장에서 구

매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투명성 제고는 물론, 예산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B2B 전자조달시스템은 계약과 관련된 각종 서식 제공 등을 통해 업무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사무 및 탕비용품 연간단가계약 MALL'에서는 대폭 할인된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B2B 사용 기관은 이용 실적에 따른 대학 발전기금도 적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